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세네갈

Republic of Senegal

2018년 11월 16일 | 선임조사역(G2) 오경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세네갈
다카르



일반개황

면적 197천 km ² 	인구 16.3백만 명 (2018 전망) 	정치체제 공화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GDP 242.4억 달러 (2018 전망) 	1인당GDP 1,485.40달러 (2018 전망) 	통화단위 CFA Franc (CFA Fr) 	환율(\$기준) 548.70 (2018 전망) 

-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세네갈은 한반도의 90% 면적의 국토와 1,632만 명('18년 추정)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리타니(북), 말리(동), 기니비소, 기니(남)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한편, 감비아는 세네갈 영토 내에 국경을 접하고 있음.
- 현 정부의 국가·사회개발계획 Plan Sénégal Emergent(PSE)의 추진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과 농업 생산량 증가 등이 성장을 견인하여 2014년부터 연 6~7%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 현재 해상에서 역외 유전·가스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원유·천연가스 생산이 본격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쿠데타를 경험하지 않고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유지하며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현 Macky Sall 대통령은 야당 세력이 분열을 거듭함에 따라 2019년 예정된 대선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0. 19 수교 (북한과는 1972. 9. 11)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8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85),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8),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146,175	250,150	78,567	자동차, 섬유제품
수 입	62,675	74,291	61,231	냉동수산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16건, 6,409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6.6	6.4	6.2	7.2	7.0
소비자물가상승률	-1.1	0.1	0.8	1.3	0.4
재정수지/GDP	-3.9	-3.7	-3.3	-3.0	-3.5

자료: IMF, EIU

인프라 투자와 농업생산량 증가로 최근 5년 간 6~7%대의 경제성장률 유지

- 세네갈 경제는 국가·사회개발계획인 Plan Sénégal Emergent(PSE)의 추진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과 농업 생산량 증가 등이 성장을 견인하여 2014~17년 연 6~7%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주요 곡물인 쌀의 생산량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 2017년에는 5년 전(2012년)의 2배에 육박하는 90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유입 증대, 농업 및 제조업 부문의 생산량 증대, 서비스 부문의 성장 등에 힘입어 전년(7.2%)과 비슷한 7.0%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성장률은 2019년에도 6%대 후반~7%대 초반을 유지할 전망이며, EIU는 2022년 이후 원유 생산이 본격화되면 9%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계속되고 있는 달러화 강세는 세네갈의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제고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2018년에도 정부 주도의 대형 인프라 투자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로 세수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의 공통된 문제인 세금징수기관의 행정력 부족 및 비효율이 재정수지 적자 지속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네갈 정부는 2013년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였으나, IMF는 2018년 3월 세네갈 경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징세 절차에 효율성 증진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2018년에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공공채무 원리금상환액의 일시적 증가에 더하여 내년 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정지출, 테러 공격 억제를 위한 안보 관련비용 지출 등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3.0%) 대비 상승한 -3.5% 내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국내경제

- 2019년에도 하계 유스 올림픽(Youth Olympic)¹⁾ 준비를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향후 원유 생산이 본격화되면 재정수입 증대로 이어져 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국제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

- 세네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세파프랑(CFA Franc)²⁾의 유로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로 인해 수입가격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이 적고, 국제유가 하락과 농업 생산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최근 3년 간 0.1~1.3%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
- 세파프랑의 유로화에 대한 환율 고정(1유로 = 655.957세파프랑)으로, 주요 수입상대국인 유로존 국가들(특히 프랑스)로부터의 상품·서비스 수입가격이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음. 아울러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환율은 5월 하순 이후 1.14~1.18유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음.
- ※ 세네갈의 2017년 기준 5대 무역상대국(상품무역 기준)³⁾
 - 5대 수출상대국 : 말리 19.8%, EU(프랑스 포함) 15.2%, 스위스 10.1%, 인도 5.0%, 코트디부아르 4.7%
 - 5대 수입상대국 : EU(프랑스 포함) 38.9%, 중국 9.7%, 나이지리아 7.9%, 인도 7.3%, 터키 3.4%
- 2018년에는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로 반전하였음에도 농업 생산량의 양호한 수준 유지, 세파프랑화 발행기관인 서아프리카 중앙은행(BCEAO)의 신중한 통화정책 운용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5% 미만으로 억제될 것으로 전망됨.
- 세파프랑화 사용국들의 통화정책은 BCEAO에 의해 결정되며, 세파프랑화가 유로화에 페그됨에 따라 BCEAO의 정책 결정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음. 즉, 각국이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소비자물가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019년에는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세계경기 둔화 요인의 대두, 미국의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로 인한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부족 발생 우려 감소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2018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네갈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계속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18년 10월 8일 2022년 하계 유스 올림픽(Youth Olympic) 개최지로 세네갈을 선정하였음. 세네갈의 Macky Sal 대통령은 동 대회를 위해 수용관중 5만 석 규모의 스타디움을 정부 지원으로 신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IOC는 동 대회 개최에 1.5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의 출범으로 자국통화인 프랑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자 (미 달러에 대한 프랑화 환율이 1:50에서 1:119로 급등) 아프리카에서 자국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코자 1945년 12월 26일 당시 아프리카의 자국 식민지들의 화폐로 CFA 프랑화(CFA franc)를 탄생시켰으며, CFA 프랑화 사용국들을 프랑존(franc zone)이라 지칭함. CFA 프랑은 프랑존 국가들과 프랑스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화폐가치가 프랑스 정부에 의해 보증되므로 대외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유로화에 대한 고정환율제 채택으로 자국 경제에 비해 화폐가치가 고평가되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프랑존 국가들의 저개발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됨.

3) 자료: WTO (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Language=E&Country=SN / 조회일자: 2018.11.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1,382	-962	-769	-1,547	-1,857
경상수지/GDP	-7.0	-5.4	-4.0	-7.3	-7.7
상 품 수 지	-2,799	-2,858	-2,654	-2,855	-3,065
상 품 수 출	2,978	2,270	2,312	2,362	2,665
상 품 수 입	5,777	5,128	4,966	5,217	5,730
외 환 보 유 액	1,851	1,837	1,441	1,829	2,882
총 외 채	10,149	13,065	13,471	14,757	17,182
총외채잔액/GDP	51.3	73.5	71.0	70.0	71.1
D.S.R.	11.0	15.6	18.0	20.7	34.0

자료: IMF, EIU

1차산업 위주의 수출구조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세네갈의 주요 수출품은 어류, 인산염, 땅콩 등의 1차산업임. 2차산업(제조업 생산품)에 비해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고 국제가격 등락폭은 상대적으로 큰 1차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유전·가스전 등 에너지 및 광업 부문 개발과 인프라 투자 관련 서비스 수입 증가,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및 원리금 상환 증가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음. 다만, 해외 거주 자국민 노동자들의 송금으로 경상이전수지는 흑자를 지속하여 상품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인프라 투자 지속에 따른 자본재 및 서비스 수입의 증가로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가 증가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7.3%)대비 다소 증가한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9년에는 국제유가 안정이 전망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2018년보다 다소 개선된 -7%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2018년 3월 10억 유로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

- 세네갈 정부는 지속적인 고성장과 정치적 안정 유지에 기반한 대외신인도 개선 등에 힘입어 2018년 3월 6일 10억 유로 규모의 유로본드⁴⁾ 발행에 성공하였음.
- 발행조건은 10년 만기에 금리 4.75%로, 같은 시기에 인근 국가인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17억 유로 규모 유로본드 발행조건(11년 만기 금리 5.25%, 29년 만기 금리 6.625%로 각각 8.5억 유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었음.⁵⁾
- 세네갈 정부는 앞서 7년 전인 2011년 5월 6일 5억 달러 규모의 국제채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발행조건은 10년 만기에 발행금리 8.75%였음. 즉, 2018년 국제채의 발행금리는 2011년 발행 대비 4% 포인트나 하락하여 세네갈 경제에 대한 국제투자자들의 신뢰 제고를 보여줌.

외채상환능력

역내국들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 세네갈은 파리클럽으로부터 2000년 10월 2,200만 달러, 2004년 6월 1억 2,700만 달러의 공적채무를 탕감받았음. 이는 인근 국가들에 비해 작은 규모로, 역내국들 중 외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총외채잔액의 약 90%를 중장기 공공채무가 차지하는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총당,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 마련, 유로본드 발행 등으로 대외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최근 수년 간 70%대 초반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2018년 말에는 전년(70.0%)대비 약간 상승한 71.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한편, D.S.R.은 채무만기 도래에 따른 일시적인 원리금상환액 증가로 인해 전년(20.7%)대비 급상승한 3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총수출 증가 등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로 전년(3개월분)대비 개선된 4.1개월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도 42%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 외채상환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4) 통화국 외에서 발행하는 통화국 화폐 표시 채권.

5) 자료: cbonds.com/countries/Senegal-bond

구조적취약성

1차산업과 관광 부문, 인프라 구축 등이 경제성장 견인

- 세네갈 경제는 광업, 농업, 수산업 등 1차산업과 관광 부문, 인프라 구축 등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외화수입원을 어류, 인산염, 땅콩 등 1차산품의 수출과 관광 부문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 농업 부문이 2017년 기준(추정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이나, 고용의 77.5%를 담당하고 있어 농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음.⁶⁾ 주요 농산물은 땅콩으로, UN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세네갈의 땅콩 생산량은 71.9만 톤(세계 10위)을 기록하였음.⁷⁾
- 2017년 기준 상품수출 구성은 농산물 34.2%, 공산품(제조업 제품) 31.9%, 연료 및 광물제품 17.4%, 기타 16.5%로 집계됨. 한편, 상품수입 구성은 공산품(제조업 제품) 53.0%, 농산물 25.2%, 연료 및 광물제품 21.5%, 기타 0.4%로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⁸⁾
- 한편, 정부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재정수지 적자 총당을 국채 발행 등 대외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여, 정부의 연간 총지출(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ODA) 및 공적원조(official aid) 순유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1.5%에서 2016년에는 16.2%로 현저히 감소하였음.⁹⁾

열악한 전력, 도로 등 인프라로 인해 취약한 성장기반

- 세네갈은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과중한 대외채무로 인한 투자여력 부족, 인프라 개발을 담당할 정부 부처의 고질적인 비효율 등으로 인해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성장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2017-18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인프라 부문 107위(종합순위 106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은행의 2019년도 기업경영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전력공급 부문에서 127위(종합순위 141위)를 기록하였음.

6) 자료: CIA World Factbook (조회일자: 2018.11.15.)

7) 자료: FAOStat (www.fao.org/faostat/en/#data/QC)

8) 자료: WTO (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Language=E&Country=SN / 조회일자: 2018.11.15.)

9) 정부의 연간 총지출액은 2000년 8억 3,865만 달러에서 2016년 45억 5,958만 달러로 443.7% 증가한 반면, 공적개발원조 및 공적원조 순유입액은 2000년 4억 3,215만 달러에서 2016년 7억 3,639만 달러로 70.4% 증가하였음.

(자료: IMF WEO Data, 세계은행(data.worldbank.org/indicator/DT.ODA.ALLD.CD?locations=SN))

성장잠재력

2021~23년 중 원유·천연가스 생산 개시 기대

- 세네갈의 원유·천연가스 잠재력은 2000년대 들어 주목받기 시작하여, 현재 해상에서 역외 유전·가스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2016년 영국 Cairn Energy는 세네갈 SNE 유전¹⁰⁾에서 평가용 유정 4공의 시추에 성공하였으며, 미국 Kosmos Energy는 석유메이저인 BP와 합작으로 세네갈 해상에서 시추한 5공에서 모두 천연가스를 발견하였음.
- 당시는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상황이었어서 세네갈의 원유·천연가스 개발도 정체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유전 개발이 가속도를 얻고 있음.
- Cairn Energy와 Kosmos Energy 모두 2019년부터 원유·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임. 석유업계는 빠르면 2021년, 늦어도 2023년부터는 세네갈의 원유·천연가스 생산이 본격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관광 부문의 개발 잠재력 보유

- 세네갈은 대서양과 접하는 청정해안과 열대성 기후를 갖춰 연중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과거 프랑스 식민지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방문 수요가 많음.
- 세계적인 여행 전문 사이트 Lonely Planet은 2018년 10월 발표한 "2019년에 방문해야 할 세계 10대 도시"에 아프리카 대륙 소재 도시들 중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Dakar)와 모로코의 메크네스(Meknes)를 포함시켰음.¹¹⁾
- 대서양 연안의 항구도시인 다카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로드 레이싱 대회인 다카르 랠리(Dakar Rally)의 종착점¹²⁾으로 널리 알려진 도시이자 서부 아프리카 해양물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18년 10월 8일 2022년 하계 유스 올림픽(Youth Olympic) 개최지로 세네갈을 선정하였음.¹³⁾ 동 대회의 개최 및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특히 관광 인프라)의 구축·재정비를 통해 세네갈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가와 관광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세네갈 정부는 수도 다카르, 해안 휴양지 살리(Saly), 다카르 근교의 신도시 디암니아디오(Diamniadio) 등 3개 지역에서 대회를 진행할 예정임. 말라리아 등 열대성 전염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네갈에서 건기가 끝날 무렵인 5~6월에 대회가 개최될 예정임.

10) 현재 SNE 유전의 추정매장량은 6.5억 배럴 이상으로 평가됨.

11) 함께 선정된 8개 도시들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중국의 선전, 세르비아의 노비사드, 미국의 마이애미와 시애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크로아티아의 자다르임.

12) 2008년 북부-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과 테러 위협으로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회가 취소되어, 2009년부터 남미로 개최지를 옮겨 아타카마 사막을 경유하는 코스로 변경되었으나 다카르 랠리라는 명칭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13) 동 대회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IOC 주관 '올림픽' 대회(IOC가 주관하며 '올림픽' 명칭을 사용하는 대회) 개최로, 2022년 하계 유스 올림픽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한다는 IOC의 방침에 따라 세네갈, 보츠와나, 나이지리아, 튀니지 4개국이 경쟁하여 세네갈이 개최지로 결정됨.

정책성과

국가·사회개발계획 Plan Sénégal Emergent(PSE)의 수립 및 추진

- 세네갈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2035년까지 사회적 연대와 법치에 기반한 신흥시장국(emerging market country)의 지위를 획득코자 중장기 국가·사회개발계획인 Plan Sénégal Emergent(PSE)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¹⁴⁾
- PSE의 3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제1차 5개년 우선행동계획(Priority Action Plan; PAP)을 수립하여 2014~18년에 걸쳐 추진 중임. 동 계획의 달성목표는 평균 경제성장률 7.1%, GDP 대비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비중 개선(2018년 기준 재정수지는 -3.9%로, 경상수지는 -6% 미만으로 축소),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3% 이하 유지) 등임.¹⁵⁾
- 세네갈 정부는 제1차 PAP에 따라 민·관 합동 프로젝트(PPP) 형식으로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PPP 프로젝트 투자예산의 70%는 민간 자본으로부터 유치한다는 계획이며, 주로 프랑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기업 및 기금들이 참여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표 1> 제1차 PAP를 통해 추진 중인 PPP 프로젝트

분야	PPP 프로젝트명	소요예산 (US\$백만)
농업	Kaolack 지역의 곡물 처리 터미널 건설	60
	6개 지역의 종합적 농업 개발 프로젝트	178
	농업용 저수지 확장을 포함한 농업 인프라 개발	620
광업	Falémé 지역의 철광산 개발	202
교통운송	총연장 35km의 다카르 시내 전차(tram) 노선 구축	734
수자원	북부 해안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80
교육, 과학기술	다카르에 새 국립 대학교 개교	200
	Diamniadio 신도시 지역에 "지식 도시"(City of Knowledge) 건설	90
	전국 9개 지역에 공립 고등 직업훈련기관 개교	160
	전국 6개 대학교에 기숙사 신규 건설	280
보건의료	다카르에 암 예방 센터 개설	30
	다카르에 신규 종합병원 개설	160
관광	Joal Finio, Mbodiène, Pointe Sarène 해변에 관광단지 건설	704
외국인투자 유치	Diass 지역에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 조성	90
	다카르 포함 3개 지역에 비즈니스 파크(business park) 조성	540
주택	다카르 포함 6개 지역에 공공주택단지 건설	440

14) PSE의 3대 목표 : ①부(wealth)와 고용과 사회통합의 창출을 위해 현재의 성장 엔진의 강화 및 새로운 경제영역의 개발을 통한 경제구조 변환; ②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 복지의 현저한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달성; ③치안, 사회안정, 거버넌스,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법치주의의 강화.

15) 제1차 PAP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평균 7.1%에 미달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2018년 말 GDP의 -7%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나, 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말 GDP의 -3.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18년 연평균 0.4%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어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정책성과

IMF는 세네갈의 경제개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IMF는 지난 7월 2일자로 발간한 세네갈에 대한 정책지원제도(PSI)¹⁶의 제6차 점검 보고서를 통해, Plan Sénégal Emergent(PSE)에 명시되고 PSI의 지원을 받는 경제개혁 노력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IMF는 세네갈 경제가 2017년 7.2%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면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고,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3.0%를 유지한 점을 근거로 들었음.
- 다만,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세네갈 정부가 연료보조금 지급을 통해 에너지 국내가격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IMF는 2018년 세네갈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대비 상승한 -3%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다카르-지부티 아프리카 횡단 철도 프로젝트 추진

- 다카르와 홍해 연안 지부티의 수도 지부티(Djibouti)를 연결하는 아프리카 횡단 철도(Trans-African Railway) 프로젝트가 2017년 8월 1일 착공되어, 2022년 9월 4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임.
- 서부 아프리카와 동부 아프리카(특히 홍해 연안)를 연결하는 동 철도는 10개 국가¹⁷를 통과할 계획이며, 동 철도의 개통으로 아프리카 동부와 서부 간의 육상 운송로가 연결되며 통과국들 간의 무역 활성화가 기대됨.
- 특히 서부 아프리카 해양물류의 허브인 다카르 항은 동 철도의 개통으로 통과국들로부터의 수출입 화물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 투자를 통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기업경영여건은 여전히 세계 하위권이나 지속적 개선 추세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9 보고서에 의하면, 세네갈의 기업경영여건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종합순위 141위로 세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¹⁸ 다만, 동 순위는 2014년 178위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임.
- 창업(64위) 및 파산/퇴출(94위)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8개)에서 100위권 밖에 그쳤으며, 특히 계약이행(142위), 자금조달(144위), 납세(171위) 부문에서 여전히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한편, 세네갈 정부는 2016년 새 광업법의 제정을 통해 금광 및 철광산 개발 관련 규제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광업 부문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6) Policy Support Instrument. IMF의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경제정책 운용에 관한 조언/자문이 필요한 저소득국가를 대상으로 IMF가 제공하는 정책 지원 프로그램. 현재 세네갈의 PSI 프로그램은 중기적으로 세무행정 개선, 세출 축소, 공공투자 효율성 증대, 에너지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17) 기점인 세네갈과 지부티를 비롯하여 말리, 부르키나파소, 토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에티오피아. (지선은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부룬디 등으로 연결될 계획임.)

18)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고 순위는 모리셔스(20위)임.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세네갈보다 높은 순위는 가나(114위), 코트디부아르(122위), 카보베르데(131위), 토고(137위)이며, 세네갈보다 낮은 순위는 니제르(143위), 말리(145위), 나이지리아(146위), 모리타니(148위), 감비아(149위), 부르키나파소(151위), 기니(152위), 베냉(153위), 시에라리온(163위), 기니비소(175위)임.

정치동향

독립 이후 현재까지 정치적 안정 지속

- 세네갈은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쿠데타를 경험하지 않고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을 유지하며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소수의 아프리카 국가들 중 하나임. 이러한 정치적 안정에는 Léopold Senghor 초대 대통령(1906-2001)¹⁹⁾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됨.
- 독립 후 처음 실시된 1960년 9월의 선거에서 당선된 세네갈사회당(PSS)의 Senghor 대통령은 1980년 말까지 30년 간 5번의 임기에 걸쳐 재임하며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사회주의 성향이었음에도 당시 아프리카 각국에 만연된 공산주의와 반(反)서구 정서를 거부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세계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였음.
- Senghor 대통령의 정계 은퇴와 더불어 세네갈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완전한 복수 정당제를 도입(1981년)하였음. 이후 대통령직은 선거를 통해 Abdou Diouf(2대, 1981~2000년, PSS), Abdoulaye Wade(3대, 2000~12년, 세네갈민주당[PDS]), Macky Sall(4대, 2012년~현재, 공화국연합[APR])로 이어지고 있음.

집권 연립여당, 2017년 7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 확보

- 2012년 2월 26일 실시된 대선에서는 APR²⁰⁾의 Macky Sall 후보가 26.58%, 당시 현직 대통령인 PDS의 Abdoulaye Wade 후보가 34.81%를 득표하였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3월 25일 실시된 대선 2차 투표에서는 Sall 후보가 1차 투표 당시의 여타 후보들에게 분산된 표를 전폭적으로 흡수하며 65.80%를 득표하여 Wade 후보(34.20% 득표)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2017년 7월 30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연립여당인 APR는 전체 165석 중 125석(지역구 105석 중 95석, 비례대표 60석 중 3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여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짐.

Macky Sall 대통령, 2019년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 높음

- Macky Sall 대통령은 1992년부터 계속된 남부 Casamance 지역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통해 2014년 5월부로 반군의 공격을 종식시켰으며, 세네갈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원유·천연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정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
- 아울러 현재 야당 세력이 단합되지 못하고 분열을 거듭하며 지리멸렬한 양상을 계속함에 따라, Sall 대통령은 2019년 예정된 대선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는 세네갈에 대한 4분기 Country Report에서, Sall 대통령이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난히 재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Sall 대통령의 집권 후 농촌 지역의 인프라 개선이 이전 정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진척됨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도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음.

19) 정치인인 동시에 시인이자 문화이론가로, 아프리카 대륙 출신의 흑인으로서 최초로 Académie française(프랑스 한림원)의 회원으로 선출(1983년 6월)된 바 있음.

20) 2008년 12월 당시 총리였던 Macky Sall 현 대통령이 PDS를 탈당하며 창당하였음.

사회동향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일반 국민의 생활환경은 열악한 편

- 세네갈은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의 생활환경이 여전히 열악하여,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8년 인간개발지수(HDI) 보고서(통계수치 업데이트)에서 조사대상 189개국 중 164위로 최하위 15%에 속하였음.²¹⁾
- 교육수준은 평균 학교교육 이수기간이 3.0년, 25세 이상 성인 인구의 중등교육 이수 비중이 17.1%,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해독률이 42.8% 등으로 낮은 수준임. 다만, 보건·의료시설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관계로 평균 기대수명은 67.5세, 영아사망률은 1,000명 당 33.6명으로 인근 국가들 및 다른 최하위권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²²⁾
- 전체 인구의 약 38.0%가 극빈선(2011년 PPP 기준 1일 1.9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²³⁾

남부 Casamance 지역 분리주의 반군의 공격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 1970년 이후 경제난과 가뭄으로 인해 북부의 Wolof 부족 주민들이 토지가 비옥한 남부 Casamance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토착민인 Diola 부족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1980년대 들어 Casamance 지역의 항구 도시 Ziguinchor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음.
- 기니비소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Casamance 지역은 세네갈 영토 내에 삽입된 형태로 위치한 감비아에 의해 북부 지역과 거의 단절된 지역이며, 세네갈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슬람계 Wolof 부족과는 달리 기독교계 Jola(Diola) 부족이 주류를 이루어 상호 이질성이 뚜렷함.

<그림 1> 세네갈 Casamance 지역 지도



21) UNDP Human Development 2018 Statistical Update.

22) 인근 국가들의 경우 기대수명은 모리타니 63.4세, 감비아 61.4세, 기니 60.6세, 말리 58.5세, 기니비소 57.8세이며,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은 감비아 42.2명, 모리타니 54.4명, 기니비소 57.8명, 기니 58.3명, 말리 68.0명임.

23) World Bank data. (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DDAY?locations=SN, 조회일자: 2018.11.13.)

사회동향

- 1990년 Casamance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Casamance 민주세력운동(MFDC)가 결성되고, MFDC는 무장 반군을 조직하여 1992년 8월 대정부 게릴라전을 시작하였음. 이후 휴전협정과 이의 파기가 반복되면서 정부군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반군 세력이 와해되고 MFDC는 온건파와 강경파로 내부 분열에 휩싸였음.
- 결국 2004년 12월 30일 세네갈 정부와 MFDC는 평화협정에 조인하였으나, 2006년 4월 23일 반군이 정부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분쟁이 재발하였음. 2007년 1월 13일 MFDC의 지도자이자 카톨릭 사제인 Augustin Diamacoune Senghor가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함에 따라 MFDC는 3개 분파로 분열되었음.
- MFDC의 분열 후 정부군을 겨냥한 반군의 공격은 대부분 소규모의 간헐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반군의 3개 분파 중 1개의 수장인 Salif Sadio가 바티칸 교황청의 중재로 세네갈 정부와 비밀 회동한 뒤 2014년 5월 1일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하였음.
- 휴전 선언 후 반군 세력의 공격은 종료되었으며, 일부 강경파에 의한 공격 재개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18년 1월 6일 Ziguinchor 근교에서 소규모 무장집단의 총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반군의 공격이 재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MFDC측은 동 사건이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며 공식 부인하였음.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 위협 상존

- 세네갈은 서부 아프리카 일대에 만연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나, 알제리에 근거지를 둔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QIM)를 비롯하여 인접국들에서 세력 확장을 꾀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은 세네갈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테러를 시도하고 있음.
-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인 JNIM²⁴⁾(대원 규모 800여명 추정)은 세네갈의 인접국인 말리에서 출범하여 현재 말리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음.
- 한편, 서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니제르, 카메룬, 차드를 포괄하는 차드 호수 유역에서는 Boko Haram(대원 규모 1,500여명 추정)과 IS(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대원 규모 3,500여명 추정)가 세력 확장을 추진 중임.
- 이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면서도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인 세네갈을 타깃으로 삼고 공격을 모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세네갈의 치안에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네갈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2012년 4월 프랑스 정부와, 2016년 5월 미국 정부와 각각 방위협력협정을 갱신하는 등 서방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24) JNIM(Jama'at Nasr al-Islam wal Muslimin) : 아랍어로 "이슬람과 무슬림 지원 그룹"이라는 뜻.

국제관계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 유지

- 세네갈은 146년 간의 프랑스 식민 통치의 결과 이슬람권 국가임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와 특별히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는 서부 아프리카의 자국 식민지 연방체인 프랑스령 서아프리카(AOF)²⁵⁾의 수도를 세네갈의 생루이(Saint-Louis, 1895-1902년)와 다카르(1902~60년)에 두었으며, 특히 다카르를 '아프리카에서의 프랑스식 문명 개화의 상징'으로 만들려 AOF 내 2개 철도 노선²⁶⁾의 기점으로 삼고 교육과 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현대적인 도시로 개발하였음.²⁷⁾
- 통신, 대형 유통업, 은행, 건설, 항만, 호텔 및 관광 등 세네갈의 서비스 부문에 다수의 프랑스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아울러 프랑스는 세네갈에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 중 하나이며, 프랑스 중앙은행이 세파프랑의 가치 및 지급을 보증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는 매우 긴밀함.
- 1974년 3월 프랑스와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 현재 350명 규모의 프랑스군이 다카르 시내 전략지역에 주둔하고 있음. 이는 세네갈은 물론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지역의 안정에 위기가 발생할 때 프랑스가 개입하여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임.
- Macky Sall 대통령은 2012년 4월 취임 후 첫 번째 非아프리카 방문국으로 프랑스를 선택하였으며, 2014년 11월 제15차 프랑스어권 정상회의(Francophonie Summit)를 다카르에서 개최하였음. Abdou Diouf 前대통령은 2003~14년 프랑스어권 정상회의 총재를 역임한 바 있음.
- 프랑스의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2018년 2월 세네갈을 방문하면서 세네갈에 471억 세파프랑(약 7,180만 유로) 규모의 원조 제공을 발표하였음. 동 원조는 생루이 항만 유지보수 및 사적지 리노베이션, 다카르의 17개 학교 건설, 상하수도 시스템 확충 등에 투입될 계획임.

중국,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와 일대일로 관련 협약 체결로 세네갈 진출 본격화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8년 7월 21일 중국 국가원수로는 10년 만에 세네갈을 방문, 양국 간 무역 협정은 물론 서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일대일로 구상 관련 협약 등 여러 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음.
- 특히 아프리카 횡단 철도(Trans-African Railway) 프로젝트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과 세네갈은 2005년 수교하였으며, 수교 이래 현재까지 중국의 대 세네갈 투자액은 약 18억 유로로 추정됨.

25) Afrique-Occidentale française. 1895년부터 1960년까지 존속하였으며, 현재의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베냉, 말리, 기니, 모리타니,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토고를 포괄하였음.

26) 생루이-다카르 노선(1885년 개통, 현재는 폐선), 다카르-니제르 노선(1924년 개통).

27) 1957년 개교하여 재학생 수가 6만 명에 이르는 다카르 대학교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대학교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특히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은 아프리카 대륙 최고 수준으로 꼽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유학생들이 많음.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제관계

- 중국은 프랑스에 이어 세네갈의 제2의 무역상대국으로, 2016년 양자간 무역규모는 2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됨.
- 세네갈의 대 중국 수출품목은 견과류와 지르코늄, 티타늄 등 비철금속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중국 건설기업들의 세네갈 공공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대 세네갈 수출품목은 건설기자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수도 다카르의 도로, 극장,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등 다수의 인프라가 중국 건설기업들에 의해 건설되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어분(fishmeal)의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외국 어선들이 세네갈 인근 해역에까지 진출하여 어족자원의 대규모 남획을 자행하면서 어족자원 고갈로 어민들의 생계가 정면으로 위협받고 있는 점은 중국과의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역내 협력체에 적극 참여, 인접국들과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친소(親疏) 교차

- 세네갈은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1975년 창설)와 서부 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UEMOA, 1994년 창설)의 회원국이자 해당 지역협력체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ECOWAS는 경제협력을 넘어 역내 군사적 안정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지역협력체로, 세네갈은 ECOWAS의 창립회원국이자 ECOWAS의 자체적인 역내 평화유지군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라이베리아 내전과 코트디부아르 내전 종식에 동참하였음.
- 세네갈은 최근에는 2017년 1월 감비아 Yahya Jammeh 前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사태에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개입하여, 대선에서 승리한 Adama Barrow 후보가 감비아 대통령으로 취임토록 하였음.
- UEMOA 회원국 단일통화인 세파프랑화의 발행기관인 서아프리카 중앙은행(BCEAO)이 다카르에 소재하며, 세네갈은 UEMOA의 회원국들 내 재생에너지 및 공공 인프라 투자유치 프로그램의 주요 수혜국으로 꼽히고 있음.
- 세네갈 영토 내부에 위치한 감비아와의 관계는 과거 감비아의 독재자 Jammeh 대통령 치하에서는 원만하지 못하였으나, 세네갈 주도의 군사적 개입으로 Jammeh 대통령이 축출되고 Barrow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급속히 개선되어 현재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음.
- 남부의 인접국들인 기니, 기니비소와는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부의 인접국인 말리와도 역내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 북부의 인접국인 모리타니와는 국경 획정 문제와 공동 어업구역에서의 어로 행위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최근 양국 영해 사이의 해역에서 가스전이 발견됨에 따라 이의 개발을 위한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국제관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산유국들과도 관계 강화

- 같은 이슬람권 국가들이자 걸프 지역의 부유한 산유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세네갈 정부가 PSE를 통해 추진 중인 각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가 되고 있음.
- 걸프 지역에서 이란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세네갈 정부가 2011년 2월 23일부로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데 대하여 환영을 표하며, 이후 세네갈을 서부 아프리카의 중요한 우방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세네갈의 Abdoulaye Wade 당시 대통령은 이란이 자국의 남부 Casamance 분리주의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란과 단교하였음.
- 아울러 세네갈은 2015년 5월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2,100명의 병력을 파견하였으며, 2017년 8월에는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도한 대 카타르 단교 사태에도 합류하였음.

외채상환태도

2000년과 2004년 파리클럽으로부터 공적채무 탕감 수혜

- 세네갈은 2000년 10월 파리클럽으로부터 2,200만 달러의 공적채무를 탕감받은 데 이어 2004년 6월 다시 파리클럽으로부터 1억 2,700만 달러의 공적채무 탕감 및 3억 3,600만 달러의 공적채무 리스케줄링을 받았음. 이는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작은 규모로, 외채상환태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비율 감소 등 외채상환태도 개선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잔액은 2017년 6월 말 310만 달러에서 2018년 6월 말 45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연체비율은 2017년 6월 말 0.5%에서 2018년 6월 말 0.3%로 오히려 낮아져 외채상환태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2018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단기 2,830만 달러, 중장기 12억 1,090만 달러로 총 12억 3,920만 달러임.
-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5등급(2018.10)	5등급(2017.10)
Moody's	Ba3 (2017.04)	B1 (2011.03)

OECD 5등급 유지, Moody's는 Ba3 부여

- OECD는 세네갈의 정치 안정 및 양호한 경제성장률 지속 등을 평가하여 2017년 10월 개최된 CRE(국가위험평가 전문가) 회의에서 세네갈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6등급에서 1등급으로 1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8년 10월의 CRE 회의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Moody's는 2011년 3월 세네갈에 B1의 신용등급을 부여한 이후 이를 계속 유지하다 2017년 4월 Ba3 (등급전망은 '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세네갈은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의 중심국으로, 국가·사회개발계획인 Plan Sénégal Emergent(PSE)의 추진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과 농업 생산량 증가 등이 성장을 견인하여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7%대 초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주도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자본재 및 서비스 수입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해상에서 역외 유전·가스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독립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쿠데타를 경험하지 않고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을 유지하며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현재 국정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Macky Sall 대통령은 야당 세력이 분열을 거듭함에 따라 2019년 예정된 대선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총외채잔액의 약 90%를 중장기 공공채무가 차지하며, 2018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42%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단기내 외채상환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